2021년 대한불교조계종 봉녕사

제12회 사찰음식대향연

'치유와 힐링의 사찰음식' 주제로 비대면 온라인 행사 성황리 마쳐

대한불교조계종 봉녕사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수원시가 후원하는 봉녕사 사찰음식 대향연이 올해로 어느덧 제12회를 맞이하였다.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 및 큰 장터를 준비하여 가족과 이웃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봉녕사 사찰음식대향연은 불교사찰음식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반 대중들에게 전달해온 유일무이한 유익한 행사이며, 이미 경기도와 수원시를 대표하는 가을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올해는 코로나19의 4단계로 인하여 지자체 방역 지침에 준수하여 전면 비대면 전환, 무관중으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봉행하였다.

사찰음식은 정갈하고 담백한 수행식이자 건강식이며 그 안에는 생명과 자연을 보호하는 자비와 지혜로움이 담겨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쳐있는 이 시대 대중들에게 사찰음식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발상으로 사찰음식이 가진 치유의 힘을 전하기 위하여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극복을 위한 '치유와 힐링의 사찰음식'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준비하였다. 행사 일체를 녹화·편집하여 영상물로 선보이고 주요행사는 봉녕사 유튜브 채널로 랜선 중계하며 모든 사람들이 영상을 통하여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치료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이 돋보였다. 대한불교조계종 봉녕사에서 펼쳐진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사찰음식경연대회의 다양한 풍경을 본 지면을 통하여 소개해 본다.

본 행사는 봉녕사 홈페이지(http://www.bongnyeongsa.org)와 봉녕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 사찰음식 전시

이번 사찰음식 전시회는 사찰음식 명장 선재스님의 '약이 되는 발효음식'을 메인전시로 특별전시로는 사찰음식 대가 동희스님의 '약이 되는 바삭바삭 부각', 여거스님의 '사대강건 육근청정', 그리고 찬조전시로는 봉녕사 사찰음식교육관 금비라의 '사계절 면역밥상', 봉녕사승가대학 4학년 스님들의 '오색마니주', 3학년 스님들의 '이제염오 본체청정 개화필실', 2학년 스님들의 '오색의 향연', 1학년 스님들의 '공덕탑과 육화합',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스님들의 '소욕지족 두타행', 봉녕사 마야회 제 1팀의 '세주묘엄 큰스님의 소찬밥상', 마야회 제2팀의 '가족을 위한 건강밥상'이 출품되었다. 일반인 사찰음식경연대회에는 총 20팀 가운데 개인참가자 18분과 단체 2팀이 출품하였으며 이중 여섯 팀을 선정하여 육바라밀상을 수상하였다. 심사는 봉녕사 주지 진상스님, 봉녕사승가대학 석좌교수 도혜스님,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율주 적연스님, 사찰음식명장 선재스님, 사찰음식 대가 동희스님과 여거스님이 맡아주셨다.



▶ 비빔밥 퍼포먼스

봉녕사 사찰음식대향연이 열릴 때마다 행해온 비빔밥 퍼포먼스는 사중스님들과 신도님들이 함께 여러 가지 재료로 정성껏 준비한다. 커다란 가마솥에 비빔밥을 만들어 봉녕사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화합하는 마음을 담아 한마음으로 비비고 나누어서 사찰음식대향연을 찾은 모든 관중들이 먹을 수 있도록 공양하였다.
올해는 비대면 행사인 관계로 소수의 인원만 참석하였다.



▶ 탁발순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행하셨던 탁발은 평등과 하심, 자비의 실천 수행이다. 탁발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중생들을 안락하게 하고 공양을 올리는 신도들과 교감하면서, 그들과 진리의 여정을 함께 한다. 탁발은 상대방에게 자기의 것을 내주고, 자기를 비우는 일이다. 비우고 나누는 일이야 말로 자기의 삶을 승화시킬 수 있다. 이는 불법과 승단, 세상 간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실천하는 중도적 실천의 길이다. 이러한 정신을 가진 탁발을 직접 실천하고 대중과 함께 하기 위하여 봉녕사의 모든 대중스님들이 참가하였다. 탁발을 들고 여법하게 시연하는 스님들의 거룩하고 장엄한 모습에 지켜보는 신도님들은 신심이 충만하고 환희심을 느꼈다.



▶ 육법공양

육법공양은 향·등·차·꽃·쌀·과일 등 여섯 가지 공양물을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의식이다. 이 여섯 가지는 대승보살의 육바라밀 행인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를 각각 상징한다. 수행과 봉사를 함께 실천하는 봉녕사 보살님들의 단체인 마야회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과 사찰음식대향연을 통하여 모든 대중들과 함께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정성껏 여섯 가지 공양물을 준비하여 아름답고 정갈한 모습으로 불탑에 공양하였다.



▶ 헌다례 시연

헌다례 시연은 봉녕사 차문화연구원 불교행다례명상반 회원 23명이 참석하였다. 봉녕사 대적광전의 비로자나 부처님·노사나부처님·석가모니부처님과 신중님, 세주당 묘엄명사 큰스님 그리고 약사전의 약사여래부처님과 신중님, 용화각의 미륵부처님과 좌우 보살님께 신심과 정성이 가득한 마음을 담아 차 공양을 올렸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삶의 바른 진리를 열어 보이시고 중생들을 해탈 열반의 길로 인도해 주신 가르침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예경의식의 하나이다.



▶ 우담화합창단 공연

봉녕사 우담화합창단은 1987년 3월에 결성되어 2013년 7월부터 현재 혼성합창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불법 홍보를 위한 봉녕사 신행단체로서 단원 상호간의 화합과 음성공양을 통해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있다. 소프라노 17명, 알토 15명, 테너 6명, 베이스 7명, 총 45명의 봉녕사 신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부처님 오신 날과 묘엄큰스님 추모다례재, 봉녕사 승가대학 입학식 및 졸업식 등에서 음성공양을 올리고, 부처님 오신 날에는 수원시 화성행궁 점등식과 제등행렬에서 주변 사찰들과 연합공연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합창단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번 사찰음식대향연에서는 '우담화합창단과 함께 하는 희망과 위로의 노래'라는 테마로 문화공연 한마당을 보여주었다.



▶ 불교꽃꽂이 전시

불교꽃꽂이는 부처님께 꽃을 올리는 공화(空華)에서 유래되어 현재 체계화되고 이론화된 꽃꽂이로 발전하였다. 불단에 꽃을 올리는 정성은 하나의 기도이다. 또한 꽃을 다듬으며 마음도 함께 가다듬고 정화하는 수행이며 공부이다. 이번 사찰음식대향연에는 사단법인 한국꽃꽂이협회 사라수회 불교꽃꽂이반에서 대적광전과 도서관 1층 일우실에서 특별전시를 하였다. 봉녕사 불교꽃꽂이반은 매주 월요일 20여명의 도반들이 모여 사라수선생님에게 지도받으며, 부처님 오신 날과 각종 행사에서 봉사하고 있다.



▶ 화엄 변상도 사진 전시

봉녕사 대적광전의 안과 밖의 벽에는 80권 『화엄경』의 설법장면을 나타낸 장엄한 변상도가 벽화로 그려져 있다. 총 80점 중 50점을 사진으로 인화하여 액자를 만들어 도량에 전시함으로써 방문한 대중들에게 그림으로 나타낸 화엄경의 진리의 세계를 보여주었다.

▶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앙상블 연주

불교계 유일의 클래식 전문 연주 단체인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앙상블과 함께 '사찰음식과 클래식 음악 이야기'라는 주제로 연주를 통해 음식에 관련한 이야기와 음악으로 표현하였다.



▶ 특별 공개강좌

비대면으로 진행한 행사를 대중에게 회향하여 모든 사람들이 영상을 통한 사찰음식대향으로 유익한 정보를 얻어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사찰음식 실습과 강연을 다수 진행하였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먹거리에 대하여 깊게 생각해 보고 함께 만들어보는 대가스님들의 사찰요리 실습과 사찰음식이 면역과 힐링에 어떤 영향과 효과를 줄 수 있는가를 전문가를 통하여 들어다 보았다.

① 특별 강좌

- 선 재 스 님 : 음식은 온 우주의 생명이다
- 김응철 교수 : 사찰음식과 치유명상의 원리
- 김응철 교수 : 한국의 식치(食治) 문화와 사찰음식
- 공만식 교수 : 사찰음식에서 콩 관련 음식의 역사와 문화
- 공만식 교수 : 코로나 상황에서 불교채식의 역할과 의의



② 사찰음식 실습 강의

- 선재스님 :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시나요
- 지견스님 : 행복한 가을 사찰음식
- 동희스님 : 면역력 상승! 생강 간식
- 여거스님 : 면역력을 키우는 제철 사찰음식
- 하경스님 : 소화가 잘되는 면역 사찰밥상



YouTube 봉녕사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봉녕사 주관 봉녕사사찰음식교육관 금비라 후원 경기도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